

아직 갈 길 먼 '주문출판'

뜨겁던 e-북 열기가 한풀 꺾이고 주문출판이 출판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문출판이 출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 보관에 따르는 비용과 반품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독자들에게도 주문출판은 매력적이다. 절판도서를 쉽게 구하고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는 주문출판은 독자들에게 책을 선택할 수 있는 좀더 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문출판' 열풍 국내 출판계에도 상륙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주문출판은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신간정보 및 원하는 책 전체를 내려 받아, 이를 컴퓨터 화면에서 자유롭게 편집하고 프린트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게다가 영상 및 음성 정보까지 전달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책의 개념에 호응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는 비록 초기단계이지만 주문출판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잉그램'은 주문출판을 위한 별도 법인을 설립했다. 일본의 도매상인 '닛판'은 1999년부터 독자의 주문에 따라 책을 인쇄·제본해 판매하는 '부킹' 사업을 시작했다.

주문출판 열풍은 국내 출판계에도 이미 상륙했다. 한국출판유통은 주문출판을 위한 시장 조사에 들어갔다. 이종호 기획부장은 주문출판 시장이 5% 정도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5년 안에 20%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는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출판사의 출판물 동향을 살피고 있는 상태다. 사업을 시작한다면 2천여개에 이르는 유통망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주문을 받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독자적으로 사업을 펼치기 힘들다면 전자책 업체와 제휴해 사업을 진행할 복안도 있다."

벤처기업인 지온닷컴은 다산씨앤아이와 제휴해 주문출판시장에 뛰어들 체비를 마쳤다. 지온닷컴은 프린트와 제본을 맡고 다산씨앤아이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독자들의 주문을 받는다. 이를 위해 지온닷컴은 10억원 상당의 일제 출력기인 제록스 다큐 6180을 도입했다. 다산씨앤아이는 인터넷 사이트 개설을 서두르고 있다.

다산씨앤아이의 이석우 기획실장은 "주문출판방식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꼭 맞는 시스템"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반독자들에게 꼭 닫힌 출판사의 빗장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주문출판이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서전, 육아일기 등 독자가 원하는 책을 단 한부라도 만들어준다. 독자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종이와 표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클릭 몇 번이면 완성된 책을 받아볼 수 있다. 일반인들에게 출판사의 문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주문출판이 "종이책과 전자책의 절묘한 결합"이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단언한다. 한소장은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2~3년 정도만 지나면 수익성이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주문출판이 반드시 출판계의 장밋빛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회대 유통정보학과 박윤규 교수는 "우리 출판의 독특한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문출판이 미래형 출판으로 각광받고 있다. 절판도서의 재출간과 무재고 출판을 가능케 할 혁신적인 출판형태로 평가받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서 자리잡기 시작한 주문출판이 국내에도 선보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불확실한 시장전망과 서구와 다른 출판풍토를 들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주문출판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우리 출판의 토양이 서구와는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문출판이 활성화됐을 때 출판계 구성원들의 역할은 극도로 축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열악한 출판계를 더 황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 보여

평화당의 최영일 차장 역시 주문출판의 미래에 대해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다.

"주문출판을 시작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고가의 장비다. 인쇄업체들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주문출판 사업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고, 그만큼 여력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전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주문출판은 인쇄계와 출판계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다."

현재로서는 주문출판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상태다. 어느 누구도 선뜻 주문출판시장에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직 시장성이 검증되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e-북이라는 쓰디쓴 열매를 맛본 적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최갑수 기자